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도 종 수**
이 광 호
임 상 숙
김 영 아

- I. 연구의 개요
II. 연구 결과
III. 제언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청소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 ① 청소년들의 각종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유해도에 대한 평가를 수립하고
- ② 청소년 비행 경험율을 파악하며
- ③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경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 ④ 기존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책을 검토하여
- ⑤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대책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기존의 연구결과, 각종 보도기사, 법규 및 단속결과, 각 부분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각종 관련 문헌과 청소년 문제 및 유해환경 관계 실무담당자와 일선교사들을 면접하였다.

유해환경 접촉실태, 유해도 평가, 비행경험,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 9-10월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주, 마산, 이리, 이천, 양산, 곡성 등의 지

*이 논문은 본원의 1990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도종수(책임연구원), 이광호(주임연구원), 임상숙(연구원), 김영아(임시연구원)임.

역에서 남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24세 미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법에 의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 결과

청소년 유해환경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며 환경과 청소년간의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개념이다. 유해환경의 분류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존재형태에 따라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유해한 정보환경(대중매체), 유해상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해행동은 청소년 비행으로 별도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의 접촉실태, 유해도 평가결과, 비행과의 연관성을 유해환경의 유형별로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대중매체, 유해상황 등의 순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유해시설 및 장소의 이용경험 및 유해도

연구에 포함된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장소 중에서 청소년의 이용율이 높은 것들은 문방구(97.1% : 전체 응답자중 지난 일년동안 이용자의 비율), 분식점(92.5%), 제과점(91.1%), 공원(80.0%)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장소나 업소들은 청소년 자신들이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비행과의 연관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소나 장소들을 유해하다고 규정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패스트푸드(69.8%)와 임시 및 각종학원(61.6%)도 이용율은 높으나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들 업소나 장소들

중에서 일부는 비행과 관련되기도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유해하다고 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장소나 업소는 경양식집(71.0%), 전자오락실(64.1%), 소극장(62.1%), 롤라스케이트장(59.0%), 만화가게(56.6%), 비디오가게(50.6%)이며, 이들 중 전자오락실, 소극장, 만화가게, 비디오가게는 유해하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롤라스케이트장과 경양식집에 대해서는 별로 유해하지 않다고 보거나 유익하다고 보는 경향이였다. 청소년 비행과의 연관성을 보아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자오락실과 만화가게는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유해환경이지만 이용율이 높은 점을 보면 청소년들이 갈 만한 여가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여가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규제나 영업금지 보다는 건전한 오락프로그램과 출판물의 비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양식집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롤라스케이트장은 청소년 자신들의 평가나 비행과의 연관성을 볼 때 크게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수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는 사실과 각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비행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전한 놀이 및 여가공간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것들은 포장마차(39.8%), 음악감상실(34.7%), 카페(32.0%), DJ있는 커피숍(31.5%), 일일찻집(27.5%), 사

설독서실(26.4%), 여관·여인숙등 숙박업소(22.9%), 디스코장(18.4%), 당구장(17.4%) 등의 업소이었다. 이들 중 카페, 숙박업소, 디스코장, 당구장은 청소년 자신들이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비행과의 연관성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출입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카페나 디스코장은 최근 일부 청소년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건전공간으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흥가(15.1%), 성인디스코장(12.6%), 심야만화가게(10.0%), 음란출판물 노점상(9.5%), 사창가(7.8%), 성인오락실(6.7%), 퇴폐이발소(4.0%)는 비교적 소수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나 청소년 자신들의 평가나 비행과의 연관성을 볼 때 아주 유해한 업소나 장소로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유해물품 사용경험 및 유해도

본 조사에 포함된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이용율이 높은 것들은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70.6%), 인기인사진(60.7%), 불량식품(60.2%), 불량학용품(44.3%), 잡상인(40.6%) 등으로 이 중에서 전자오락 및 컴퓨터게임과 인기인사진은 그 자체가 유해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불량식품, 불량학용품, 잡상인은 청소년 비행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불량장난감의 이용율(28.7%)은 다소 떨어지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어 가장 문제시되는 유해물품은 담배자판기, 본드·부탄가스 등의 환각제, 마약류, 안정제·수면제 등의 각성제

들이었다. 이들 유해물품의 이용율 자체는 다른 것에 비해 높지 않지만(담배자판기 11.7%, 각성제 11.4%, 환각제 6.2%, 마약류 1.0%) 청소년 스스로 아주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청소년 비행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아주 유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담배자판기(23.3%)와 각성제(16.4%)는 남자고등학생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어 이들 물품의 판매 및 담배자판기 설치에 대한 규제, 유해성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1) TV

청소년의 전전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매체로 TV, 신문·잡지·소설·광고, 비디오테이프와 성인영화 등을 선정하여 이들 매체에 대한 지난 일년동안의 접촉경험과 청소년 자신의 유해도 평가, 비행과의 관련정도 등을 연구하였다. 먼저 TV의 각종 프로그램 시청율을 보면 쇼·코메디프로, 연속극 및 수사물, 국내영화 및 미니시리즈, 외국영화 및 연속물, 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만화영화 등에서 모두 88% 이상의 청소년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프로그램이 유해하다고 보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여 유해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TV프로그램과 함께 AFKN, 일본방송, 유선방송의 접촉정도도 연구하였는데 AFKN(39.4%)과 유선방송(47.2%)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일본방송도 11.6%가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방송의 경우 국민학생들의 시청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상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들 방송에 대해서 유해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방송에 대해서는 55.6%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TV의 프로그램이나 외국 방송 및 유선방송 접촉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방송의 경우 중·소도시 및 읍면에서의 시청율이 대도시보다 높아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규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신문·잡지·소설

신문·잡지·소설 등 각종 인쇄물의 접촉경험을 보면 스포츠신문(81.2%), 어린이 월간지(74.1%), 청소년 대상 월간지(66.5%), 여성 대상 월간지(53.5%), 월간 오락지(49.8%), 야담잡지(47.5%), 일반 주간지(44.9%), 기타 음란물 및 소설(38.9%) 등의 순서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성인만화(28.4%)와 외국음란잡지(19.6%)가 다른 것들 보다는 낮지만 상당수의 청소년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유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외국 음란잡지(87.7%), 성인만화(84.6%),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74.0%)은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간지(59.6%), 월간 오락지(47.9%), 실화·야담잡지(46.1%) 등도 유해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인쇄물은 친구들간에 돌려보게 되어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며, 남자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거나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쇄물은 비행과의 연관성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규제에 의해 제작·유통·판매 등을 통제하고 유해한 내용을 신지 못하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신문은 최근의 보도와는 달리 별로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행과의 연관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스포츠신문에 대한 비판이 성인만화 등 일부 연재물의 선정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은 스포츠 관계 보도를 포함한 스포츠 신문 기사 전반에 관한 평가로 이해되었던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3) 광고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를 접한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TV광고(95.0%), 신문광고(90.2%), 라디오광고(87.3%)를 접하고 있으며 옥외광고(79.2%)와 잡지광고(76.5%)도 많은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TV광고, 라디오광고,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옥외광고와 잡지광고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의 연관성을 보면 잡지광고와 음주, 야간배회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밖의 비행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디오테이프 및 성인영화

각종 불량 비디오 및 영화 등 저질 영상물에 대한 접촉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2%가 지난 일년동안에 폭력영화 및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32.4%)와 음란비디오(24.5%)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고등학생들의 경우에 폭력영화 및 비디

오는 89.5%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는 60.5%가, 음란 비디오는 55.0%가 지난 일년 동안에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심각한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영상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신들도 아주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저질 영상물의 시청이 음주, 흡연, 성비행 등 각종 비행과 상당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란 및 폭력 비디오와 성인영화의 제작, 배포, 상영에 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유해상황에 대한 평가와 문제되는 정도

본 연구는 유해업소 및 시설, 유해물품, 대중매체 등 사회환경 중에서 청소년의 건전성장에 유해한 요소들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공해와 같은 자연환경속의 유해요인도 있으며 가정과 학교 등 청소년의 중요한 생활공간에서의 유해요인도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유해요인들을 가정, 학교 또는 직장, 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

본 연구에서 파악한 유해상황에 대한 유해도 평가와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 가정에서 '식구들의 잦은 싸움',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등의 문제가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식구들의 무관심'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구

들의 잦은 음주·흡연'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먼저 모범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청소년들을 적절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며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학교 및 직장

학교나 직장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는 '잦은 시험 및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나 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 또는 근로시간' 등이 있으며,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지나친 차별이나 간섭', '학교나 직장주변의 폭력배', '선배나 친구의 강요'와 같은 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러가지 학원다니기'나 '친구간의 관계가 이기고 지는 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

청소년들은 제반 사회 상황 중에서 '물가 폭등 등 사회혼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불안', '황금만능주의 풍조', '과소비 풍조', '민생치안 부재', '유혹가 불량배', '테모' 등에 대해서도 시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장난전화', '흥미위주의 유행어', '어른들의 술주정',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 '자동차의 횡포' 등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생활에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5. 청소년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

청소년 비행은 본인 및 다른 청소년들의 건

전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유해행위로서 그 자체가 유해환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유해환경 접촉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행위로서 경험율과 유해도 평가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유해행위를 제외한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유해행위)의 상관관계도 검토하였다. 유해환경 접촉과의 연관성은 앞에서 논의되었기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으며, 청소년 비행의 경험율과 유해도 평가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을 살펴보면, 부모·선생님·직장상사에 대한 반항, 켄닝, 야간배회를 지난 일년 동안에 경험한 청소년들이 각각 57.4%, 53.3%, 47.2%에 달했다. 이밖에 음주경험자는 32.3%, 도박은 22.4%, 흡연은 14.2%,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는 6.5%가 해본 적이 있었다. 이들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도박과 흡연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스스로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재산비행인 절도는 5.1%의 응답자들이 지난 일년 동안에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아주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폭력비행을 보면, 11.6%가 지난 일년 동안에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집단패싸움, 위협, 흥기소지는 각각 9.7%, 9.5%, 6.3%가 해본 경험이 있으며 아주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성비행을 보면 18.2%의 응답자들이 지난 일년 동안에 음란낙서를 한 적이 있으며, 11.4%는 가벼운 성추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은 14.0%의 응답자들이 갖고 있으며, 2.8%는 성폭행을 보았다고 하여 성문제 및 성범죄가 공식 집계나 발표보

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에 관련된 비행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13.4%가 지난 일년 동안에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근을 한 경험이 있으며, 6.6%는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유해환경 접촉 및 비행경험을 집단별로 보면 근로청소년이 접촉 또는 비행경험이 높은데, 이는 이들이 학교나 직장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으로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 중에서는 남자고등학생 집단의 유해환경 접촉 및 비행경험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해도가 심각할 수록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남자중학생 집단의 접촉 및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하여는 보수적이나 남성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관습에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간에 대체로 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유해환경의 문제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6. 유해환경의 규제 현황과 대책

1) 유해환경 규제의 기본전제와 방향

청소년 유해환경은 상대적 개념이며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및 국제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다양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요건이나 성격이 유해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각

가정의 유해성 판단이 사회적 기준보다 우선하거나 존중되어야 하며 가정의 교육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해환경 규제의 근거는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에 의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지배목적은 위해 오용될 가능성과 정보선별의 곤란함 때문에 설득력이 희박하고 환경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저해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 규제의 근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각종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나 부담은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유해환경 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회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성과 전망의 바탕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되며 교육적인 환경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해 할거리와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제도화되어 지속되어야 하며 시민의식의 각성과 자구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권적인 규제나 금지수단과 설득적인 수단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며 시민이나 업주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

우리나라의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규제대상별로 분류하면 크게 성인행위 규제와 청소년행위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성인행위 규제는 유해물을 매개로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공연법, 식품위생법 등), 유해시설이나

장소를 매개한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학교보건법, 공중위생법 등), 직접 해를 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마약법, 식품위생법 등)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해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미성년자 보호법 등)와 약물사용 등의 자해행위에 대한 규제(마약법 등)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에 근거한 단속이나 처리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다. 성인의 행위를 규제한 단속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청소년 복지사범으로 분류 집계되며, 청소년에 대한 단속결과는 소년 풍기사범 단속상황으로 집계 분석되고 있다. 성인에 대한 복지사범 단속결과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에 접수 처리된 결과를 보면 단속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소년 풍기사범 단속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방충심의, 간행물심의, 공연물심의 등의 규제가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규제와 단속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종 관계법령을 정비·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비의 방향은 단속대상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단일 법적 체계로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규제에 따른 부담을 업주나 성인중심에서 이용청소년에게도 분담시켜야 한다. 셋째, 형사적 처벌이나 벌칙을 강화하는 경향에 치중하지 말고 이와 병행하여 지도, 감독의 강화 및 긍정적인 보상과 같은 형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속행위별 통계와 함께 단속법규별 통계도 집계 발표되어야 한다.

3)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자율 및 업계의 자주규제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의 자율활동은 세미나 등의 연구조사 활동, 유해환경 주방 캠페인, 유해환경 고발센터 운영 등 시민운동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나 고발센터운영 등 직접 대응활동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활동은 각종 사회, 종교 단체 중심으로 대도시 편중되어 왔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단위 활동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 활동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업주들의 자주규제 활동도 일부업주들의 비협조와 다른 부문의 규제와 연계가 결여되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활동이 단체별로 전문화, 분업화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관리, 법적규제, 업주의 자주규제 등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대도시 편중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운동 및 활동이 조직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업계의 자주적인 규제 노력이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III.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는 일부 청소년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해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바라거나 이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이나 비행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이용하거나 해보고 싶어하며 일

부 청소년들은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욕구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동시에 유해한 시설 및 장소, 물품, 출판물, 영상물을 만들고 그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본질상 유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여서 유해환경의 유해성을 여과시킬 수 있으므로 유해환경을 접하고 이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오늘날 청소년 문제 전반 또는 유해환경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의 반영이며 사회전체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 정화노력은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전전한 기풍의 수립을 필요로 하며, 청소년 자신들의 유해환경 불이용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해환경을 조성한 장본인인 어른들의 반성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어른들의 유해환경 정화노력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스스로 청소년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며 청소년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선 어른들은 청소년을 문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무관심하거나 청소년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녀가 무엇을 원하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지,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 알기에 힘써야 한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청

소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은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모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의 장임을 명심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라나면서 유해환경을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해업소나 그 근처를 지나게 되며 음란잡지나 소설들을 읽거나 읽는 것을 보게 되며 선정적인 방송이나 기사도 접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유해환경의 유혹과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를 통한 올바른 교육과 그를 통해 형성된 가치관, 부모와 선생님, 주위 어른들의 올바른 생활을 본받는 노력이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정화 노력은 규제의 편의 때문에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할거리와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할 것이 없으며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운동장과 운동시설, 휴게실, 음악감상실, 독서실 등과 같은 여가 및 생활공간이 집이나 학교 근처의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소극장 등의 장소는 현재 유해한 환경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 조명과 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이나 읽을 거리를 건전하게 전환시키면 건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유해환경은 유해성정화를 위한 단속과 함께 건전공간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롤라스케이트장과 디스코장도 일부 사회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전용의 건전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소년 대상의 장소나 시설들을 운영이나 관리방법에 따라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나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현실성있게 제도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 법규나 규제, 단속 실태 등을 검토하면 그때 그때 사회분위기에 따라 규제의 폭과 정도가 변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단속대상들도 단속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령의 정비는 단속대상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단일 법적 체계로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규제방향도 대상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유해성이 높은 유흥가, 사창가, 성인디스코장 등의 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용도구역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음란비디오, 폭력비디오, 성인영화, 음란잡지 및 소설 등은 제작, 배포, 상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담배자판기의 설치나 각성제, 마약류, 환각제의 판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이러한 물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해성을 해소하고 건전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해환경의 처벌이나 단속같은 강권적인 규제는 보상이나 권장과 같은 설득적인 규제 수단과 적절히 조화되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해환경의 적극적인 이전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업종전환이나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으로부터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방안도 강구할 수도 있다.

다섯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관리는 시민의식의 각성에 입각한 각종 단체나 지역주민 자치조직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업주의 자주규제나 청소년의 유해환경 불이용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의 자율규제 활동은 단체별로 전문화, 분업화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관리, 법적 규제, 업계의 자

주규제 등이 상호연계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활동과 업주의 자주규제 노력이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해성의 개념은 상대적이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용주체와 상호작용에 따라 변하는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유해성의 개념, 판단기준, 규제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이며 현실성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해환경 규제와 관리를 현실성있게 제도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유형별 심층적인 연구나 유해환경 접촉경험자의 체험이나 인식변화 등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유해환경에 탐닉한 청소년을 교정하는 방안이나 사례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들이 시도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1984),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7집.
-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환경개선방안, 서울:교육개혁심의회.
- 김준호(1987), “청소년 주변 유해환경과 비행선도 방안”,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주체제52회 청소년논단 발표논문.
- 대한교육연합회(1981), “학교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33집, 서울:대한교육연합회.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향락조장 대중잡지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불량출판물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90), 향락문화추방 시민운동 보고서.
- 서울YMCA 건전 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89), 공포 비디오물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 서울YMCA 건전 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89), 여름방학동안 어린이들의 비디오 시청 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대상 만화 모니터 결과 보고서.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로맨스소설 모니터 결과 보고서.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불량출판물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2차).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TV광고의 외국인 출연실태 및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영화가 향락문화에 끼치는 영향과 대책.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주요수입상품 및 추석선물용 수입식품 가격조사 보고서.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향락산업과 파소비-향락업소 가격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1989), 주요 외식산업(패스트 푸드)가격 및 청소년 이용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YMCA 청소년 성교육상담센터(1989), 청소년 성교육상담센터 5주년 보고서.

서울YMCA(1990), 청소년의 소비생활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유수현(1989), “청소년 유해환경과 지도 대책”, 청협 제13권 4호.

유재천(1989), “청소년 성교육의 유해환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서울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 주최 제1회 청소년 성교육 세미나.

유혜경(1986),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중환(1989),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대책”,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전병재(1986), “청소년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조사연구 보고서 제8집.

정진홍(1989),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청소년대책위원회(1986),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교육선교회(1989), 청소년 기사자료집 I, II, III, IV.

체육부(1990), 청소년백서, 서울:체육부.

최지운(1984), 대학환경과 정의적 특성, 서울:에지각.

치안본부(1990), 풍속영업의 단속에 대한 법률(안).

한겨레신문(1991. 1. 1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0), 만화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90 만화발전 심포지움.

한국걸스카우트연맹(1990), 걸스카우트 청소년 전용 디스코장 운영 사례자료집,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1988), 청소년문화와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 '88 도서잡지윤리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준상(1989), “교육환경 개선 운동론”,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한준상(1989),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한준상(1991),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정책”,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심포지움 발표 원고.

황정규(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藤本哲也(1985), “有害環境 と 有害性 概念”,
法律時報 제57권 7호.

藤本哲也(1987), “有害環境の 規制 と ハダーナ
リズム”, 法學新報 제93권 제6·7·8호.

矢島正見(1987), “有害環境とは”, 少年補導 제

32권 4호.

青少年育成國民會議(1985), 青少年と 有害環境
歐美 諸國に おける 各種規制と わが 國の
現状, 課題, 環境問題專門委員會の 報告
書.